

## 경산 속원 '대형아웃렛' 유치 급물살 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

산업부, 유통 상업용지 변경 승인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 초석 기대

경산지역 속원사업인 대형아웃렛 유치가 정진호가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열고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최종심의 후 통과시켰다.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한 만큼 사업시행자(경산지식산업개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 신청 승인 및 용지분양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대형 아웃렛이 들어설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개발방향의 변경으로,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R&D와 제조업 위주의 지식산업 기반에서 서비스와 유통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경제산업으로 전환해 기업과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자급자족 복합도시를 구축한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10만9228㎡(약3만3000평)를 유통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대형유통상업시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시설용지 5만1897㎡(약 1만5000평)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지역혁신연구기관 이전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립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일부 면적은 상업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제21차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과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을 넘어 경산의 미래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청년들이 산업·문화·여가를 동시에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워라밸이 있는 복합도시를 조성해 성공한 경제 자유구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 대항리, 외촌면 소월리 일원에 11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 약 166여개 기업, 7개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해 경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 방폐물 처리 대란, 발등의 불 끄나



폭풍전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훈진 기자 jih131@kyongbuk.com

여야, 고준위방폐물법 공감대  
저장시설 용량 등 이전 좁혀  
풍력법과 연계 처리 방안 논의  
21대 국회 내 통과는 '미지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풍력법)을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의견 접근이 이룬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19면  
국회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 위원회 국민연방 간사 김성원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해,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여야는 그동안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대립했다.

핵연료 물질 중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의 수용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빛원전(전남 영광군) 저장시설은 2030년이면 포화돼 사실상 가동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월성원전(2037년), 신월성원전(2042년) 등도 차례로 포화에 직면한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나자고 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으나 여야는 이번에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이울러 여야는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 김정모 기자 jim@kyongbuk.com

## 포항에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 선정  
국비 52억 등 3년간 155억 투입

포항시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핵심기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품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제조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식품커스터마이징 △친환경포장 △식품로봇) 중 분야별(식품로봇, 식물성대체식품,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식품로봇 분야에 포항이 최초로 선정됐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국비 52

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포항시 융합기술사업지구 일원(부지 6636㎡)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업 입주공간, 기술실증센터, 키친인큐베이팅 등의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시설·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과 기업의 요구도가 높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분야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내 최초 NSF(미국위생협회) 식품기기 인증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분석료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로봇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술개발을 적용하고, 나아가 미래형 K-키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면에 계속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문제는 논의"

의사단체 불참 속 '반쪽 출범'  
필수 의료 강화 등 집중 논의  
노 위원장, 전공의 참여 촉구

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9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

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공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 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으로 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

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강,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협)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예정됐다.

김정모 기자 jim@kyongbuk.com





## 자연에서 쉬고 문화로 즐기자! '일거양득' 산소카페 청송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청송, 주왕산, 신성계곡 녹색길, 백석단, 얼음골 등 청송은 글로벌 생태관광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남관생활문화센터, 남관미디어아트홀, 객주박물관, 청량대운도전시관, 청송백자전시관, 청송심수관도예전시관, 청송수석꽃돌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연에서 쉬고 문화로 즐기는, '일거양득' 산소카페 청송군.**

※ 일거양득(一舉兩得) :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음. 일석이조

